인문연구 제94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4, No. 1, pp.73~104
http://dx.doi.org/10.21211/JHUM.94.3

고대 일본의 고좌(高座)

임남수*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사찰의 資財帳과 고좌
3. 正倉院文書에 보이는 고좌
4. 나가는 말

【국문초록】

본고는 고대 일본의 高座에 관한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그 구성과 규모, 재료와 기법 등을 고찰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8-9세기에 작성된 法隆寺와 大安寺, 東大寺 阿彌陀院 등의 資財帳을 통해 본 고대 일본의 고좌는 승려가 앉는 좌구인 고좌, 고좌에 오르기 위한 階(登 또는 橋), 불경 등을 올려놓는 前机, 天蓋와 그 기둥, 그리고 고좌 한 벌의 받침대로서의 大床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영남대학교 회화과 교수

둘째, 正倉院文書에 보이는 興福寺와 法華寺의 고좌를 검토하여 고좌에 사용된 옻과 금의 양을 밝히고, 건칠기법으로 제작된 것임을 밝혔다. 특히 光明皇后의 추선을 위하여 제작된 法華寺의 고좌는 부속물을 土漆과 黑漆을 여러 번 거듭하여 마감하였고, 금도금으로 장식한 장석과 못을 사용하여 검은색과 노란색의 대비가 매우 강한 장식적 효과를 의도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正倉院文書의 石山院 관련 기록을 통하여 고좌 제작에는 최소한 54명 이상의 공인이 6개월여에 걸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교미술에서는 금당의 불상과 그 부속물이 주목을 받기 쉽지만, 佛法僧으로 구성되는 사찰 내에서 법과 승을 아우르는 강당의 중요성은 금당에 못지않다. 그 강당의 가장 중요한 장엄구가 고좌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고좌의 위상은 불상의 대좌만큼이나 중요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高座, 資財帳, 法隆寺, 大安寺, 東大寺, 多度神宮寺, 廣隆寺, 興福寺, 法華寺, 石山院, 正倉院文書

1. 들어가는 말

불교의 3요소인 佛法僧은 사찰의 조영에도 반영되어 사찰 내부는 佛의 공간인 금당, 法의 공간인 강당(법당), 僧의 공간인 승방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에서 금당과 강당은 '堂'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승려의 생활공간인 '房'과는 격이 다른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금당은 사찰의 앞쪽에 위치하여 내부에는 금빛의 불상이 높은 대좌 위에 안치되고, 내부 공간은 화려하게 장엄되어 부처의 淨土를 상징하고 있는 반면, 강당은 금당의 뒤쪽에 위치하며, 내부의

장엄도 소박하여 講經공간으로의 성격이 강하다. 강경은 다수의 승려들이 모인 가운데, 讀師와 講師를 맡은 2명의 승려가 高座에 마주 앉아 불법의 奧義를 문답을 통하여 깨달아가는 법회를 말한다. 다수의 승려들이 모이는 만큼 강당의 평면 규모는 금당보다 훨씬 크며, 따라서 강당의 고좌는 금당의 불상 대좌만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고대 한국 불교의 원류인 중국에도 고대의 사찰 건축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목재로 만들어진 고좌의 사례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한편 일본에서는 상당수의 고대 사찰이 아직 법등을 전하고 있지만, 고좌는 13세기 이후의 사례가 약간 남아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좌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1)]

그런데, 고대 일본 불교를 대표하는 法隆寺와 大安寺, 廣隆寺 등에는 資財帳이라고 불리는 고문서가 남아있으며, 특히 東大寺에 전래된 正倉院文書에는 8-9세기 당시의 고좌의 형식을 살펴볼 수 있는 약간의 단서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일본의 고문헌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고좌의 형식과 장엄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 고좌 연구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사찰의 資財帳과 고좌

746년(天平18년) 10월 4일, 僧綱所는 左大臣의 명령을 받아 각 사찰에 緣起와 자재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사찰이 작성한 자재장이 이듬해인 747년 2월 11일 승강

1) 불교 사전 등에 고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으나, 상세한 연구논문은 찾기 어렵다. 望月信亨編『望月佛教大辭典』, 京都: 世界聖典刊行協會, 1967, p.1043.

소에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에 대한 승강소의 감사가 748년 6월 17일에 완료되었다.[2] 각 사찰의 자재장은 승강소의 지시로부터 약 4개월 걸려서 작성되고, 제출 후 1년 5개월에 걸쳐 승강소에서 그 내용을 감사한 것이다. 이처럼 746-748년에 이루어진 자재장의 작성과 감사는 1년 10개월에 걸쳐 진행된 국가적 규모의 종교 사무 감사이었으며, 따라서 이 당시의 자재장은 奈良시대 일본 사찰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사료로서 가장 신뢰성이 높다.[3]

자재장에는 伽藍의 由緖를 적은 緣起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후대까지 전승되는 기본 자료로서 流記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형식을 모두 갖춘 문서를 伽藍緣起幷流記資財帳이라고 불렀다. 앞서 언급한 法隆寺, 大安寺 등의 자재장이 이에 해당하며, 현재 연기 부분만 남아있는 元興寺의 자재장도 작성 당시에는 法隆寺 나 大安寺와 같은 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재장은 당초 매년 작성되었으나, 후대에는 6년 또는 4년마다 작성하여 재산의 변동과 散失을 확인하였다.[4]

자재장에는 사찰내의 각종 물품들이 사용목적에 따라 佛物, 法物, 僧物, 通物로 구분되었는데,[5] 금당과 강당 등의 堂宇, 聖寶인 불상, 불화, 경전, 그리고 의례에 필요한 법구는 물론, 그릇 등을

---

2) 『大安寺伽藍緣起幷流記資財帳』말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竹內理三編, 『寧樂遺文』宗教編上, 東京: 東京堂出版, 1997, p.382, p.389를 참조.

3) 元興寺의 경우는 전래과정에서 자재 부분은 없어지고, 연기 부분만 현존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불상의 광배명문을 인용하여 일본의 불교전래연도가 538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4) 中川由莉, 「天平十九年伽藍緣起幷流記資財帳と寺院政策」, 南都佛教研究會, 『南都佛教』97, 2012, pp.17-37. 현재 廣隆寺에 전하는 『廣隆寺資財交替實錄帳』(890년)는 別當 교체에 맞춰 기존 자료인 『廣隆寺緣起資財帳』(873년)과 檢校하여 재산의 변동을 확인한 자료로서, 자재장의 성격 이해에 도움이 된다.

5) 法隆寺의 자재장에는 佛分, 法分, 僧分, 通分으로 구분되어 있다.

비롯한 일상용품, 노비, 토지, 곡식, 문서 등 각종 재산의 명칭과 크기, 숫자 등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본고에서 검토하는 고좌는 불물이나 법물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에서는 각 사찰의 자재장에 기록된 고좌를 검토하고자 한다.

①『法隆寺伽藍緣起幷流記資財帳』(747년, 이하『법륭사자재장』)

法隆寺는 7세기 전반에 聖德太子가 창건한 사찰이다. 경내는 西院가람과 東院가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6] 각 가람의 자재장이 별도로 전하고 있는데,『법륭사자재장』은 西院가람의 자재장이다.『법륭사자재장』에는 고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7].

> 高座參具 二具寺造者
> 壹具
> 右 天平元年歲次己巳仁王會時, 納賜平城宮御宇天皇者

이 사료에 의하면, 자재장이 작성된 747년 당시 法隆寺의 西院가람에는 고좌 3벌이 있었다. 그 중의 1벌은 729년(天平元年)의 仁王會 때에 聖武天皇이 시납한 것이며, 나머지 2벌은 사찰측이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729년의 인왕회는『續日本紀』천평원년 6월 1일조에 보이는 전국적인 규모로 개설된 인왕회를 말한다.[8] 729년 2월 聖武天皇을 비호하던 藤原가문이 정적인 長屋王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長屋王의 變'이 일어났다. 정변이 끝난 후, 6월에 인왕회가 개설되었고, 이어 7월에 진귀한 거북의 출현이 보고되어 8월에 연호가 天平으로 바뀌었으며, 藤原가문 출신인 光

---

6) 法隆寺 미술에 대해서는 大橋一章・片岡直樹編,『法隆寺-美術史研究のあゆみ-』, 東京: 里文出版, 2019. 을 참조.

7) 본고에 인용한 사료는 흔글워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필서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자체로 바꾸어 입력하였다.

8)『續日本紀』天平元年 6월 1일조, "講仁王經於朝堂及畿內七道諸國"

明子가 妃에서 皇后로 책립되어 바야흐로 藤原가문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따라서 729년 6월에 개설된 인왕회는 長屋王의 變 이후의 어수선한 정국을 쇄신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聖武天皇과 藤原가문의 안태를 기원하는 정략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법륭사자재장』은 고좌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좌의 형태나 크기, 장엄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자재의 기록방식을 보면 고좌에 대해서는 한 벌을 의미하는 具로 헤아리고,[9] 그 밖의 榻과 床, 机 등 각종 목조물은 낱개로 세고 있으므로 고좌는 여러 개의 부속물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聖武天皇에 의하여 시납된 고좌는 官營工房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매우 뛰어난 공예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大安寺伽藍緣起幷流記資財帳』(747년, 이하 『대안사자재장』)

大安寺는 일본 최초의 官寺로서, 창건 당시에는 百濟大寺라고 불렸다가 710년의 平城京 遷都에 따라 현재 위치로 이전한 후에는 大安寺로 불리게 되었다.[10] 『대안사자재장』에는 大般若經會의 의례구로서 고좌가 기록되어 있다.

經臺 貳足	高座 貳具
机 陸足	禮盤座 貳具

---

9) 具의 의미에 대해서는 大橋一章・片岡直樹編, 주6 전게서의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林南壽, 「伝橘夫人念持仏廚子」, pp.296-316.

10) 水野柳太郎, 「大安寺伽藍緣起幷流記資財帳について」, 南都佛教研究會, 『南都佛教』3, 1957, pp.45-56.
松田和晃, 「大安寺資財帳の成立に關する一考察」, 慶応義塾大學法學研究會, 『法學研究』64-1, 1991, pp.191-212.

즉, 大安寺에는 고좌와 예반좌가 각각 2벌, 그리고 경대와 궤가 존재하고 있었다. 고좌와 예반좌는 모두 의례용 좌구이지만, 예반좌는 고좌에 비하여 낮은 자리를 지칭한다. 『대안사자재장』도 法隆寺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아 그 형태와 크기는 알 수 없다. 6개의 궤를 제외하면 경대와 고좌, 예반은 각각 2벌씩 있기 때문에 1벌식 1조를 이루어 2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大安寺는 민간사찰인 法隆寺와는 달리 '大寺'라고 불리는 국가대찰이었지만, 고좌는 2벌만이 기록되어 있다. 法隆寺의 경우도 聖武天皇이 시납한 고좌를 제외하면 사찰측의 고좌는 2벌이었으므로, 고대 일본 사찰에는 고좌가 2벌 마련되어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續日本紀』천평 9년 4월 8일조에 의하면, 대반야경회는 大安寺의 승려 道慈律師가 國家鎭護와 사찰의 안녕을 위하여 조정에 청하여 개설하였다고 한다.[11] 이 해에는 전국적으로 천연두가 창궐하여 藤原가문의 유력자 4형제가 잇달아 병사하는 등 정국이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다. 대반야경회는 이러한 시기에 '護寺鎭國平安聖朝'를 기원한 것이었으므로 호국불교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법회는 승려 150명을 청하여 대반야경을 轉讀하는 것이었으나, 大唐樂과 伎樂을 동반하는 등 성대하게 발전하며 후대까지 이어져 大安寺를 대표하는 의례로 자리잡았다.[12] 따라서 『대안

11) 『續日本紀』천평 9년 4월 8일조,
律師道慈言. 道慈奉天勅住此大安寺, 修造以來, 於此伽藍恐有災事. 私請淨行僧等,每年令轉大般若經一部六百卷. 因此, 雖有雷聲, 無所災害. 請自今以後, 撮取諸國進調庸各三段物以充布施. 請僧百五十人令轉此經. 伏願. 護寺鎭國平安聖朝. 以此功德永爲恒例. 勅許之.

12) 大安寺의 대반야경회는 927년에 편찬된 格式集인 『延喜式』권21에 매년 4월 6일과 7일 이틀간 개설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平安시대의 불교입문서 『三寶繪詞』(984년 편찬)에도 소개되어 있다. 平城京의 사찰을 대표하는 의례로서 興福寺의 維摩會, 藥師寺의 最勝會, 東大寺의 修二會 등이 있다.

사자재장』에 기록된 고좌와 예반좌는 국가대찰의 격에 어울리는 매우 화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法隆寺緣起起幷資財帳』(761년, 이하『동원자재장』)

『동원자재장』은 法隆寺의 동편에 위치하는 東院가람의 자재를 기록한 것인데,[13]『법륭사자재장』과『대안사자재장』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자재장 작성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고좌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合白木高座貳具幷机禮盤二足
合高座寶頂貳具身黑紫綾秘錦領地古錦交鐒頂木金 塗鏤銅鐒者小鏡二面
合寶頂懸木錦袋貳具二□秘錦 長各一丈三尺
合高座褥肆枚二表紺花錦裏□緣綾 紫花錦領二席錦綾
合高座褥貳枚竝表白錦 裏緣綾 紫錦領
合高座橋褥貳枚竝表縹錦裏
合禮盤褥肆枚二表二科二式裏緣綾 二席錦領
合高座茵貳枚黑紫綾領
合禮盤茵貳枚赤紫綾領

이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761년 당시 法隆寺 東院가람에는 고좌 2벌, 고좌의 寶頂(천개) 2벌, 보정의 懸木을 위한 錦袋 2벌, 고좌의 褥 6매, 고좌의 橋(계단)의 욕 4매, 예반의 욕 4매, 고좌와 예반의 茵(자리) 각각 2매가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고좌에 궤와 예반이 부속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교(계단)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이다.『법륭사자재장』과『대안사자재장』에는 고좌를 '貳具'로 표기하여 고좌가 낱개의 의례구가 아니라 복합식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었는데,『동원자재장』에는

13) 近藤有宜,「法隆寺東院の救世觀音像安置について」, 日本歷史學會,『日本歷史』653, 2000, pp.1-17.

고좌의 부속물로 궤와 예반이 註記되어 있고, 보정과 교가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좌가 궤, 예반, 교, 천개로 구성된 복합식 의례구인 점이 확인된다. 이들 부속물들은 모두 褥으로 덮었는데, 욕은 黑紫色이나 赤紫色, 紺色, 緋色의 錦으로 만들었으므로 매우 화려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고좌가 白木인 점은 주의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목재를 가공하여 마감할 때에는 여러 겹으로 옻칠을 하여 내구성과 장엄성을 높이는데, 白木은 丹靑이나 옻칠을 하지 않은 원목, 또는 흰 채색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正倉院에 전하는 御床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어상은 聖武天皇이 생전에 사용하던 침대이었으나 聖武天皇 사망 이후 東大寺에 헌납되었다. 『國家珍寶帳』(756년)에 의하면, 어상에는 호분이 칠해져 있었으므로, 흰색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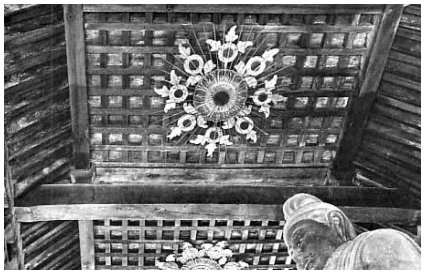
흰 목재는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의 神社 건축에 사용되었으며, 神明造 건축으로 알려지는 伊勢神宮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15] 따라서 동원가람에서는 고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필자의 해석은 고좌의 천개인 보정을 통해서도 방증할 수 있다. 『동원자재장』에 의하면, 보정에는 작은 거울이 2면 있었다고 하므로 각각의 고좌에는 거울이 하나씩 부착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東大寺 法華堂의 본존 不空羂索觀音菩薩像과 좌우 협시인 梵天像, 帝釋天像의 천개에는 거울이 각각 부착되어 현존하고 있으며(그림 1), 正倉院文書에 의하면, 興福寺 西金堂 灌頂幡에도 거울이

14) 『東大寺獻物帳』, "御床二張竝塗胡粉具 黑地錦 端疊 褐色地錦 褥一張 廣長亘兩床 綠絹袷覆一條"

15) 神明造 건축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건축의 형식으로, 채색하지 않은 흰 편백나무의 사용은 그 특징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림 1〉 法華堂의 天蓋
(천개 중앙의 검은 원이 거울)

달려 있었다.[16] 또한 오늘날에도 일본의 신사에서 거울을 신의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17], 法隆寺 東院가람에서는 고좌가 단순한 의례나 장엄구가 아니라 불상의 대좌 또는 천개와 같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바꾸어 말하면, 고좌 위의 승려는 대좌 위의 불상만큼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다.

보정의 懸木는 보정을 고좌에 고정하기 위한 목재를 지칭하며, 錦袋는 보정에 달린 幡으로 추정되지만 분명하지 않다. 다만 길이가 1장 3척인 점을 고려한다면, 보정을 포함한 고좌의 높이는 1장 3척 이상으로 보아도 좋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원자재장』는 고좌의 색, 보정이나 욕에 사용된 천의 재질과 색 등에 대하여 기록하지만, 고좌의 크기나 형태에 대해서는 높이가 1장 3척 이상으로 추정될 뿐 명확하지는 않다.

④ 『東大寺阿彌陀院悔過料資財帳』(767년, 이하 『회과료자재장』)

일본 최대의 사찰인 東大寺의 별원인 阿彌陀院에서는 光明皇后의 정토왕생을 기원하는 阿彌陀悔過가 매년 3월에 개설되었다.[18]

---

16) 『大日本古文書』1-565. "裏着鏡一面 徑四寸半厚三分"

17) 일본의 神社에서는 신을 참배하는 拜殿에 신의 상징물로 거울을 두고 있으며, 3種의 神器에도 八咫鏡라는 거울이 있다.

18) 阿彌陀院과 阿彌陀悔過의 성격에 대해서는 中野 聰, 「光明皇后と東大寺阿彌陀堂」, 『奈良時代の阿弥陀如來像と淨土信仰』, 東京: 勉誠出版, 2013, pp.84-120을 참조.

『회과료자재장』은 阿彌陀悔過의 사용된 자재와 용품을 기록한 자료이며, 고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床二前各以胡粉畫水形 高一尺三寸 廣四尺 長六尺五寸
褥二枚表臘纈 裏淺綠 緣錦
貫等二枚
覆二條各甲纈沙 三副 長各八尺五寸 一見在一失物
聖僧榻一前作以水精幷金塗花形釘 高一尺二寸五分 廣四尺一寸 長四尺八寸
褥一枚表臘纈 裏淺綠纈
貫等一枚
覆一條各合纈羅 裏淺綠纈
道師榻一前作以水精幷金塗花形釘 高一尺二寸二分 廣四尺一寸 長四尺五寸八分
褥一枚表紫綾 綠黑紫綾 四角着錦 裏臘纈
短疊一枚錦緣
貫等一枚
右 以天平十三年三月造畢, 安置淨土幷來集物等如件

이 사료에는 床과 榻, 그리고 褥, 貫等, 覆 등이 기재되었는데, 이 자재들은 741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여기에는 고좌는 보이지 않으나, 床과 榻은 불교 도입 이전부터 중국에서 사용되던 좌구이었고,[19] 불교 도입 이후에는 고좌의 별칭으로, 또는 고좌를 구성하는 요소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床은 장방형이며, 호분으로 물 형상을 그렸다고 하므로 흰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흰색의 좌구는 앞서 검토한 法隆寺 동원가람의 고좌나 正倉院의 御床와 공통점을 지닌다.

한편, 물의 형상은 阿彌陀院의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東大寺 阿彌陀院은 光明皇后가 자신의 정토왕생을 기원하기 위하여

19) 後漢代에 劉熙가 편찬한 『釋名』卷六釋床帳第十八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人所坐臥曰床, 床裝也所以自裝載也, 長狹而卑曰榻, 言其鶩榻然近地也, 小者獨坐主人無二獨所坐也"



〈그림 2〉 橘夫人廚子念持佛

阿彌陀悔過를 행하던 곳이었다. 서방정토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아미타여래는 연꽃 위에 앉아 설법하기 때문에 서방정토인 극락을 표현할 때에는 연못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20]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작품이 法隆寺에 전하는 橘夫人廚子念持佛(그림 2)이다.

이 불상은 須彌座 위에 올려놓은 牀帳 안에 아미타삼존상을 안치하는 형식이며, 세련된 조형과 뛰어난 조각기법을 보이는 白鳳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牀帳 내부 바닥에는 연꽃과 물결을 부조한 청동판을 깔고, 그 위로 피어오른 3송이의 연꽃 위에 아미타불좌상과 좌우협시보살입상을 각각 안치하였다.[21] 이 청동판의 연꽃과 물결은 바로 서방정토를 상징한다.

이 아미타삼존상은 光明皇后의 어머니인 橘夫人의 念持佛로 알려지는데, 東野治之에 의하면, 橘夫人은 스스로의 정토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신앙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신앙은 光明皇后에게 계승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2] 따라서 필자는 光明皇后의 정토왕생을 기원하는 東大寺 阿彌陀院의 床에 물이 그려진 것은 橘夫人廚子念持佛의 영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

20) 돈황막고굴 221굴의 아미타정토변상도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1) 林南壽, 주9 전게논문, pp.296-316.

22) 東野治之「橘夫人廚子と橘三千代の淨土信仰」, 東京國立博物館, 『Museum』 565, 2000, pp.71-79.

그런데, 東大寺 阿彌陀院의 상과 탑의 크기를 비교하면, 너비는 서로 같지만, 높이는 상이 탑보다 약간 높고, 길이는 50%나 길다. 더욱이 좌구 목록 중에서는 가장 앞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은 聖僧이나 道師보다 격이 높은 인물을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그 인물은 聖武天皇과 光明皇后로 생각해야 마땅하다. 물 그림이 그려진 床에 앉은 聖武天皇과 光明皇后는 성승탑과 도사탑에 앉은 승려와 大衆들이 벌이는 阿彌陀悔過에 둘러싸여 마치 극락에 왕생한 것 같은 종교적 체험을 했던 것으로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⑤『廣隆寺緣起資財帳』(873년, 이하『광륭사자재장』)

廣隆寺는 7세기 전반에 秦氏가 창건한 사찰이며, 京都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23] 廣隆寺는 818년에 화재로 가람이 소실된 후, 새로 재건되었기 때문에 고대 사찰의 변모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광륭사자재장』에는 淳和天皇의 후궁이었던 永原御息所가 헌납한 고좌가 2벌 기록되어 있다.[24]

高座貳基高三尺 廣三尺五寸 各在蓋幷橋大床 同調度雜物
前机二前各有甲纈褥幷合甲纈前垂 各五副長四尺四寸
　幡捌流長六尺三寸
　茵貳枚捌流 錦錦
已上三種故尙藏永原御息所奉納

이 사료에 의하면, 廣隆寺의 고좌는 높이 3척, 너비는 3척 5촌

23) 廣隆寺 미술에 대해서는, 林南壽,『廣隆寺史の研究』,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03을 참조

24) 永原御息所에 대해서는, 原浩史.「廣隆寺講堂阿弥陀如來坐像の願意と造立年代—願主「永原御息所」と「亭子女御」・緖継女王との關係から—」,『古代寺院の芸術世界』, 東京: 竹林舍, 2019, pp.494-523을 참조

이며, 각각의 고좌는 천개와 橋와 前机, 大床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廣隆寺 고좌의 주요 구성물은 大床을 제외한다면, 法隆寺 東院가람과 같으므로 9세기에 제작된 고좌는 8세기의 고좌 구성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료에서는 大床의 존재가 확인된다. 대상은 고좌와 한 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東大寺 阿彌陀院의 床과는 다른 용도이며, 문맥으로 보아 불상이나 고좌의 받침대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번이 8流인 점, 고좌가 2벌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천개는 사각형이며 각각의 모서리에 번이 달려있었을 것이다. 또한, 번의 길이가 6척 3촌이므로 대상 위에 3척 높이의 고좌를 올려놓는다면, 고좌의 총 높이는 1장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廣隆寺 고좌에서 또 하나의 특이점은 前机의 前垂이다. 前垂는 앞서 살펴본 다른 사찰의 고좌와 榻床에서는 없던 것으로, 廣隆寺의 고좌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전궤를 덮은 褥 위에 하나 더 천을 덮어 전궤의 정면으로 흘러내리게 한 것을 지칭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중국의 돈황벽화 등에 나타나므로 일본 고좌만의 요소는 아니지만, 그 등장시기가 平安시대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의할 만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廣隆寺의 고좌는 구성뿐만 아니라 총 높이도 法隆寺 東院가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奈良시대에서 平安시대에 이르는 일본 고좌는 전통적인 형식을 계승하면서, 장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⑥『多度神宮寺伽藍緣起幷資財帳』(801년, 이하『신궁사자재장』)

多度神宮寺는 일본 전통의 神道와 외래 종교인 불교와의 習合을 보여주는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25] 따라서『신궁사자재장』에는

25)『신궁사자재장』에 의하면, 이 사찰은 763년(天平宝字 7년)에 多度神의 神託에 의하여 滿願禪師가 건립하였다고 전한다.

平城京나 平安京의 대사찰과는 다른 가람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찰 경내의 東塔이 檜皮葺로 불리는 일본 전통식 지붕인데 비하여 西塔이 기와지붕인 점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궁사자재장』에는 法物로서 고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高座貳具高二尺一寸五分　廣方三尺六寸
> 高座机貳前　椅貳前
> 高座寶頂貳具 各小幡四旒 寶頂骨貳具

이 사료에 의하면, 多度神宮寺에도 2구의 고좌가 안치되어 있었다. 고좌와 전궤, 椅(계단), 寶頂으로 이루어진 복합식 고좌이었으나, 廣隆寺에서 보이던 대상과 예반은 보이지 않는다.[26] 고좌의 보정에는 각각 小幡을 4旒 드리웠으므로, 보정은 廣隆寺와 마찬가지로 사각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多度神宮寺의 고좌는 위에서 검토한 廣隆寺의 고좌와 유사한 형식을 보이며, 규모도 높이가 1척 정도 낮기는 하지만, 너비는 廣隆寺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多度神宮寺는 금당이 없고 법당만 있었는데, 그 높이가 1장 2척 4촌이므로 그다지 대규모의 건물은 아니었다. 이러한 공간 규모를 고려한다면, 廣隆寺나 法隆寺 東院가람의 고좌와 같은 높은 고좌는 설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27] 다만 고좌의 너비가 廣隆寺와 비슷한 3척 6촌인 점을 보면, 승려가 앉아 강경할 수 있는 일정너비는 확보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찰의 자재장에 기록된 고좌는 法隆寺 東院가람에서 多度神宮寺에 이르기까지 고좌와 천개, 계단

---

26) 자재장의 후반에는 "高座幷禮盤短茵肆枚"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예반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27) 『광륭사자재장』에 의하면, 廣隆寺 금당의 높이는 1장 5척 6촌이다.

등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奈良시대에서 平安시대에 이르는 고좌의 형식은 거의 같고, 크기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東大寺 阿彌陀院의 경우는 고좌가 아닌 낮은 형태의 床과 榻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금당이나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강경의례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聖武天皇과 光明皇后의 정토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회과의 사적인 성격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데, 사찰의 자재장에 기록된 고좌는 法隆寺나 大安寺, 廣隆寺의 경우처럼 수량과 크기를 적거나, 法隆寺 東院가람 또는 東大寺 阿彌陀院처럼 장엄에 이용된 직물의 재료와 색 등을 적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같은 자재장 내에서도 수백 점에 달하는 그릇들의 수치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적는 기록 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아마도 자재장은 어디까지나 재산목록이므로 재산의 유무, 그리고 유사물품과의 구별에 작성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용이한 불상이나 고좌 등 대형 물품은 오히려 간략하게 기록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法隆寺와 大安寺의 자재장은 작성하여 제출된 후 1년 4개월 후에 감사가 끝났는데, 이처럼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다양한 자재, 그중에서도 다수의 소형 자재의 확인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正倉院文書에 보이는 고좌

正倉院文書로 알려지는 일본 奈良시대의 고문서 중에는 造佛所 또는 造物所, 作物所와 관련된 자료들이 다수 현존하고 있다. 造佛所나 造物所, 作物所 등은 이름 그대로 불상이나 각종 물품을 제작하던 관영공방이었다. 正倉院이 東大寺의 소관이었던 만큼 正倉院文書는 사찰의 건립과 寫經 관련 내용이 많다. 본고에서는 고좌

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興福寺와 法華寺, 石山院의 사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興福寺 西金堂의 고좌

興福寺 西金堂은 光明皇后가 733년(天平5년)에 사망한 어머니 橘夫人의 추선을 위하여 세운당우이며, 橘夫人 1周忌인 734년에 완성되었다. 건물 내부에는 丈六의 석가여래좌상을 본존으로 20구가 넘는 보살상과 승려상으로 구성된 釋迦淨土群像이 안치되어 있었는데, 현재 興福寺國寶館에 전시되어 있는 阿修羅像(그림 3)을 비롯한 八部衆像, 十代弟子像 등은 모두 西金堂 석가정토군상 중의 일부이다.


〈그림 3〉 阿修羅像

福山敏男는 正倉院文書 중에서 「造佛所作物帳」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문서들을 정리하여 그것이 734년에 완성된 興福寺 西金堂 조영에 관련된 자료라는 사실을 밝혔다.[28] 이 가운데 고좌와 관련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高座二箇各高二尺八寸 方四尺二寸 以金銅繪
　用漆九升二合　掃墨一升六合　練金小七兩二分　銀二兩一分
寶蓋二箇各六角裏徑九尺一寸 以金銅繪
　用漆六斗七升七合　掃墨一斗八升四合
　卽細布四端一丈上總細布　小麥粉四升卽漆料
　練金小十四兩三分　銀二兩三分二銖

28) 福山敏男, 「奈良時代に於ける興福寺西金堂の造營」, 『日本建築史の研究』, 京都: 綜芸社, 1980, pp.87-148.

寶蓋柱十二枚各長九尺六寸徑二寸三分 以金銅繪
用漆一斗四合 掃墨五升一合
練金小十二兩三分 銀一兩三分四銖
大床二箇各高二尺方七尺六寸
用漆一斗五升四合 掃墨六升二合
登二箇各高四尺九寸廣三尺八寸
用漆一斗二升八合 掃墨四升九合
高座前几二箇各長四尺一寸廣一尺六寸高三尺三寸
用漆三升六合 掃墨一升二合
禮盤二箇各高九寸方四尺
用漆六升五合二勺 掃墨二升三合
高座寶蓋幡十二首々別長六尺五寸
用幡頭裁銅十二枚各高二寸七分廣六寸 料銅三斤五兩四銖

이 사료에 의하면, 西金堂에는 고좌 2기가 제작되었다. 고좌는 寶蓋, 보개의 기둥과 번, 大床, 登(계단), 전궤, 예반으로 구성되어 앞서 살펴본 廣隆寺의 고좌와 같은 형식임을 알 수 있다.

각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좌는 높이 2척 8촌, 너비는 사방 4척 2촌의 정사각형이며, 금동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고좌에 漆과 練金, 銀, 掃墨[29] 등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목재 부분은 옻과 먹을 이용하여 黑漆을 하고, 그 위에 금과 은의 합금과 도금된 구리 장식 등으로 장엄하였을 것이다.

고좌의 寶蓋, 즉 천개는 육각형이며, 지름이 9척 1촌이므로, 고좌의 너비보다 2배 이상 크며, 따라서 고좌와 그 부속물들을 모두 덮을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개에는 칠과 연금 외에 上總지역의 細布와 小麥粉이 사용되고,[30] 건칠기법을 뜻하는 '卽'이 註記되어 있으므로, 이 보개는 건칠기법으로

29) 油煙墨을 말함.
30) 上總은 현재의 치바현(千葉縣) 중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고대 지명.

제작한 후 표면에 흑칠을 하고 금은으로 그림을 그려 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은색과 노란색, 흰색의 강한 대비는 의장성을 한층 높이는 효과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육각형의 보개에는 높이 9척 6촌, 지름은 2촌 3푼의 기둥을 세웠으며, 각각의 기둥은 옻을 칠한 후 연금과 은을 이용하여 문양을 그렸다. 그리고 보개의 모서리에는 6척 5촌의 번을 12조 달았는데, 각 번의 위에는 높이 2촌 7푼, 너비 6촌의 도금장식이 달려 있었다.[31]

고좌의 부속물로는 大床과 계단인 登, 전궤, 예반 등이 기술되어 있다. 대상은 높이 2척, 사방 7척 6촌의 규모이며, 여기에도 칠과 먹이 이용되었다. 대상은 낮은 정방형이므로, 앞서 廣隆寺의 사례처럼 고좌를 올려놓는 대좌의 기능을 지닌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대상과 보개의 기둥을 합한 높이는 1장 1척 6촌이며, 여기에 보개와 부속구를 얹는다면 총 높이는 1장 3척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西金堂 고좌에는 예반이 한 벌 확인된다. 예반은 大安寺와 法隆寺 東院가람에서도 그 존재가 보이지만, 규모나 형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西金堂의 예반은 높이 9촌, 너비는 사방 4척의 규모이므로. 고좌의 너비와 같은 반면, 높이는 고좌의 약1/3정도이므로 낮다. 예반은 이처럼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더 큰 전궤보다 오히려 약 1.8배의 칠과 먹이 사용되었다. 이는 칠을 여러 번 거듭하여 만든 사실을 알려주며, 그만큼 예반이 중요한 의례구로서 인식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興福寺 西金堂 고좌는 734년에 光明皇后가 어머니를 위하여 제작한 것인 만큼, 당시로서는 가장 화려

31) 「造佛所作物帳」의 해당 부분은 斷簡이므로 수은 기사는 보이지 않으나, 이 문서에서 구리가 사용된 각종 調度品에는 수은이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번의 장식에도 도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고 규모가 큰 고좌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관영공방의 기준작품으로서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장엄은 고좌와 보개, 보개의 기둥에는 黑漆을 한 후 금동으로 문양을 그려 장식을 하였으나, 계단과 전궤, 예반에는 금과 은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칠과 먹으로만 마감한 것으로 생각된다. 法隆寺, 大安寺, 廣隆寺 고좌의 채색 여부는 사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관영공방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므로 西金堂의 고좌와 마찬가지로 黑漆 마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西金堂의 고좌는 東大寺 阿彌陀院의 床榻과 비교하면, 너비는 비슷하지만 높이는 약 2배나 되므로 탑으로 기록되었던 東大寺 阿彌陀院의 것에 비하여 글자 그대로 고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廣隆寺의 고좌와 비교하면, 西金堂 고좌의 높이는 미미하게 낮고 너비는 약간 넓어 차이를 보이나, 천개에 달았던 번의 길이는 2촌 더 길다. 따라서 廣隆寺의 천개 기둥의 높이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고좌의 높이와 천개에 달린 번의 길이로 미루어 보아 西金堂 고좌의 9척 6촌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興福寺 西金堂의 고좌는 크기와 형식 뿐 아니라 채색이나 장식 등 제작기법을 알 수 있으므로 일본 고대 고좌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② 法華寺 阿彌陀淨土院의 고좌

法華寺는 745년에 光明皇后가 皇后宮에 세운 사찰이며, 사찰의 서남쪽에 별도로 阿彌陀淨土院을 세웠다. 그러나 건립 도중이던 760년(天平寶字4년)에 光明皇后가 사망하고, 그 1주기에 맞춰 阿彌陀淨土院의 금당이 완성되었다.[32] 正倉院文書 중에는 石山寺 조

32) 三宮千佳,「法華寺の西花苑、西院について-阿弥陀淨土院の造營をめぐって」, 早稻田大學美術史學會,『美術史研究』42, 2004, pp.45-66.

영에 관한 기록으로 알려진 문서가 다수 존재하는데, 福山敏男는 그 중 일부가 761년에 작성된 法華寺 阿彌陀淨土院의 금당 관련 기록임을 밝혔다.[33]

특히, 과거에 「造石山院所用度帳」으로 불려왔던 문서는 法華寺 阿彌陀淨土院 금당의 건립과 장엄에 소용된 자재들의 용도와 물량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금당 내에는 橋, 전궤, 천개, 대상, 예반으로 구성된 고좌 2기가 제작되었다. 문서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지면 관계상 고좌의 제작에 사용된 도금장식과 옻칠부분의 일부만 소개한다.[34]

五十兩一分高座二基料肱金二百九十六物料
七兩高座二基料肱金三十二物料
高座上角金八枚長各一尺一寸八分廣一寸七分
料滅金三兩一分二銖別一分四銖
下角金八枚長各一尺二分廣一寸二分 料金二兩一分二銖別一分一銖
上角波佐目八枚長各一尺廣四分 料金二分四銖別二銖
下角波佐目八枚長各九寸二分廣四分 料金二分四銖別二銖
…
三兩二分高座二具肱金料蟹目釘三千三百八雙塗料
…
八升四合四勺高座二基塗料
三升六合二度土漆料基別一升八合
四升四合四勺三度黑漆料基別二升
…
三斗七升高座盖二覆塗料
一斗六升盖二覆□料
九升五合一盖三重□料重別三升
六升五合一盖二重□料重別三升

---

33) 福山敏男, 주28 전게서, 「奈良時代のおける法華寺の造營」, pp.207-308.
34) 사료의 전문은 『大日本古文書』16권, pp.252-274를 참조.

九升二盖裏於一度土漆料盖別四升五合
五升二盖枚桁丸桁垂木多々理形及波佐目等塗二度土塗二度土漆料
盖別二升五合
七升二盖枚桁丸桁垂木多々理波佐目等塗三度黑漆料盖別三升五合
…
請貲布壹十捌端
…
廿五丈高座盖二覆□料覆別十二丈五尺裏於□料
…
調布貳端貳丈柒尺
七丈高座盖二覆裏於□料 (□+土+塞, 건칠의 의미)

法華寺 阿彌陀淨土院의 고좌는 法隆寺 東院가람, 興福寺, 廣隆寺의 고좌와 비교해보면, 고좌로 오르기 위한 도구를 階 또는 橋라고 지칭하는 차이만 있을 뿐 고좌의 구성은 유사하다. 구성물 각각의 형태와 크기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法華寺 고좌에 사용된 금의 양이 7냥인데 비하여 興福寺의 고좌는 7냥 2푼을 사용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좌의 크기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35] 고좌나 예반, 천개의 기둥에 사용된 옻의 양에 차이가 다소 나타나는데, 이는 후술하는 것처럼 옻칠을 몇 회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이 사료는 고좌 제작에 사용된 자재의 수량이 비교적 자세하여 고좌 제작기법 고증에 도움이 된다. 먼저, 50냥 1푼의 금을 이용하여 裝錫 296개를 제작하였다. 고좌의 上角金과 下角金은 고좌 상하단의 모서리를 보강하는 용도이며, 波佐目는 너비가 4푼인 점

35) 興福寺의 경우는 금의 단위를 小兩으로 표기하고, 法華寺는 兩으로 표기하고 있어서 표기법에 차이가 나타난다. 奈良시대의 율령인 大寶令의 주석서 즉, 『令義解』卷10, 雜令用度量條에는 '凡度地量銀銅穀者, 皆用大, 此外官私悉用小者'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은과 동은 大兩, 금은 小兩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여 본고에서는 두 사례 모두 小兩으로 판단하였다.

을 고려하면, 고좌 상하단의 아래와 위에 있는 좁은 단을 장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금 3냥 2푼을 들여 제작한 蟹目形 못 3308쌍을 만들었는데, 이 못은 장석을 박아 고정시키는 용도일 것이다. 興福寺 西金堂에서는 전궤와 계단, 대상, 예반에 금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法華寺의 고좌에는 모든 구성물에 금을 사용하여 장식성을 높였다. 光明皇后의 추선을 위한 건물에 어울리는 장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총 8斗 1升의 옻을 사용하여, 고좌와 교, 전궤, 천개의 목재, 예반에 2회의 토칠과 3회의 흑칠을 하여 표면을 마감하였고, 대상에는 각각 2회씩 토칠과 흑칠을 하였다. 이처럼 부속물의 성격에 따라 칠의 횟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앞서 검토한 興福寺 西金堂의 예반과 전궤에 사용된 칠의 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천개의 지붕은 마포와 옻을 이용한 건칠기법으로 만들고, 1회 토칠을 하여 마감하였다. 지붕에 사용된 재료는 麻布 32丈 즉, 8端과 옻 3斗 6升인데, 이는 興福寺 西金堂의 세포 4端 1丈, 옻 6斗 7升에 비하여 마포를 2배 정도 많이 사용한 반면, 옻의 양은 약1/2 정도이며, 또한 토칠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소맥분을 이용한 興福寺 西金堂의 천개와는 다른 제작기법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자료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法華寺 阿彌陀淨土院의 고좌는 다수의 도금 장석과 못, 최대 5회에 걸친 옻칠 등으로 마감하여 光明皇后의 격에 어울리는 매우 화려한 모습이었으며, 크기도 興福寺 西金堂의 고좌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③ 石山院의 고좌

石山院은 東大寺의 별원으로 창건되었으며, 淳仁天皇과 孝謙上皇이 세운 保良宮이 근방에 있어서 왕실과 매우 중요한 관계를 지닌 사찰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石山院의 건립공사는 造東大寺

司의 협력을 받으며 761년(天平宝寶 5년)부터 1년에 걸쳐 조영공사가 진행되었다.[36] 石山院에 관련된 正倉院文書는 斷簡이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작업인원과 제작일정에 관한 부분만 추출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사료 1)
『大日本古文書』16-211(天平寶字6년 12월)
高座二基各高四尺方四尺五寸 工卅八人
前机二前各長四尺廣二尺高四尺五寸 工七人
사료 2)
『大日本古文書』15-189(天平寶字6년 4월 13일)
造石山院所
請高座短疊二枚各廣方四尺三寸
禮盤短疊二枚各廣方四尺 色同高座短疊同
사료 3)
『大日本古文書』5-198(天平寶字6년 4월 1일)
石山寺寶頂銅物 功九人
사료 4)
『大日本古文書』15-321(天平寶字6년 3월 26일)
廿六日下黑葛參了
右 遣高座料, 借充上寺如件, 付御童子諸足
사료 5)
『大日本古文書』15-181(天平寶字6년 4월 4일)
一請阿膠貳斤, 所請如件,
右 爲固高座, 所請如件
사료 6)
『大日本古文書』5-325(天平寶字6년 4월 9일)
九日下膠貳拾節請 又下拾節
右 高座固料, 下如件, 附他田小豊

36) 石山院 조영에 대해서는, 福山敏男, 주28 전게서, 「奈良時代のおける石山寺の造營」, pp.309-436을 참조.

사료 7)
『大日本古文書』5-367(天平寶字6년 4월 13일)
又下戶板三枚二枚作高座前机料 一枚作中取料
사료 8)
『大日本古文書』5-326(天平寶字6년 4월 14일)
又下一寸半八十八一寸九十六雙已上充高座橋打料付他田小豊返上廿四雙
사료 9)
『大日本古文書』15-302(天平寶字6년 4월 22일)
作上高座肱金六枚重二斤十一兩
사료 10)
『大日本古文書』15-368(天平寶字6년 4월 23일)
廿三日下和炭壹斛作高座肱金物料重充眞時
사료 11)
『大日本古文書』15-306(天平寶字6년 7월 29일, 8월 3일)
廿九日作上一寸平頭釘百廿二雙重九兩 高座料
…
三日作上一寸平頭釘百卌雙重十四兩 高座料

먼저, 사료 1에 의하면, 石山院에도 고좌 2기가 있었다. 고좌의 크기는 높이 4척, 너비는 사방 4척 5촌이며, 38명(연인원, 이하 같음)의 공인이 이를 제작하였으며, 전궤는 높이 4척 5촌, 길이 4척, 너비 2척이었으며, 공인은 7명이었다. 크기로는 고좌와 전궤가 비슷하지만, 고좌의 공인이 많은 것은 고좌에 교(계)나 천개의 기둥 등 부속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사료 2에는 고좌와 예반에 사용된 단첩(다타미)의 너비가 각각 4척 3촌과 4척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단첩은 762년(天平寶字) 4월 13일에 東大寺에 요청한 것이므로 石山院에서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다. 4월 1일에 東大寺 측에서 작성된 사료 3에 의하면, 石山院 보정에 사용된 구리장식은 東大寺에서 공인 9명이 제작하였다. 이처럼 石山院의 건립에 東大寺가 관여한 것은 앞서 기술하였

듯이 石山院이 東大寺의 별원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사료 4는 3월 26일에 고좌에 사용하기 위한 黑葛을 지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사료 3과 더불어 石山院 고좌의 제작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하다. 4월 4일에는 고좌에 사용할 아교 2근을 東大寺에 요청하여(사료 5), 4월 9일에 아교가 지급되었다(사료 6).

이어서, 고좌의 전궤를 위하여 戶板 2매와 고좌의 橋에 사용할 못 184쌍이 각각 4월 13일과 14일에 내려갔으며(사료 7, 8). 4월 22일에는 고좌의 장석 6매와 1촌 크기의 平頭釘 142쌍을 만들기 시작하였고(사료 9), 이튿날인 4월 23일에는 이를 위하여 和炭 1곡이 제공되었다(사료 10).[37] 그리고 7월 29일과 8월 3일에 平頭釘 122쌍과 140쌍을 고좌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므로(사료 11), 고좌의 제작은 3월에서 4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마무리된 것은 8월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고좌 제작에는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石山院의 고좌는 너비가 4척 5촌, 높이도 4척이므로 검토한 사례 중에서는 가장 크며, 연인원 54명 이상의 공인이 참여하였다. 石山院이 東大寺의 별원으로 건립되고, 조영 공사를 造東大寺司가 담당한 까닭도 있을 것이다. 다만, 사용된 못이 平頭形이므로, 法華寺 阿彌陀淨土院의 蟹目形과는 장식성에서 차이를 보이며, 금도금 또한 불분명하다. 따라서 石山院 고좌의 장엄이 금과 은, 蟹目形 못 등이 사용된 法華寺나 興福寺의 수준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앞서 검토한 法華寺의 고좌는 규모는 명확하지 않으나, 法華寺가 東大寺와 마찬가지로 국가사찰인 점을 고려한다면 興福寺와 石山院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興福寺 西金堂의 고좌는

37) 소나무나 밤나무 등을 부드러운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숯을 말하며, 주로 鍛冶에 사용되었다.

너비가 사방 4척 2촌이었고, 石山院의 고좌는 너비 4척 5촌이어서 너비가 4척 이상이다. 이에 비하여 민간사찰인 廣隆寺의 고좌는 너비 3척 5촌이므로 石山院에 비하면 1척이나 작다. 이는 왕실에서 발원한 사찰과 민간사찰의 규모와 격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法華寺 阿彌陀淨土院의 고좌가 興福寺나 石山院과 비슷한 너비 4척 이상이며, 소요된 인원도 石山院의 예로 유추하여 최소한 연인원 54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4. 나가는 말

본고에서는 고대 일본의 고좌에 관한 문헌자료를 검토하면서 그 구성과 규모, 제작기법에 관련된 재료 등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奈良시대에서 平安시대에 이르는 사찰의 資財帳과 正倉院文書를 통해 본 고대 일본의 고좌는 승려가 앉는 좌구인 고좌, 고좌에 오르기 위한 階(登 또는 橋), 불경 등을 올려놓는 前机, 天蓋와 그 기둥, 그리고 고좌 한 벌의 받침대로서의 大床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사찰의 고좌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高座	蓋(寶頂)	幡	橋(階)	前机	禮盤	茵	大床
法隆寺	○	-	-	-	-	-	-	-
大安寺	○	-	-	-	-	○	-	-
法隆寺東院	○	○	△	○	○	○	○	-
廣隆寺	高 3 廣 3.5	○	長 6.3	○	○	-	○	○
多度神宮寺	高 2.18 廣 3.6	○	○	○	○	△	○	-

興福寺 西金堂	高 2.8 廣 4,2	徑 9.1	長 6.5	高 4.9 廣 3.8	高 3.3 廣 3.8 長 4.1	高 0.9 廣 4.0	-	高 2.0 廣 7.6
法華寺 阿彌陀淨土院	○	○	○	○	○	○	-	○
石山院	高 4.0 廣 4.5	○	○	○	高 4.5 廣 2.0 長 4.0	○	-	-
東大寺 阿彌陀院	床 高 1.3 廣 4.0 長 6.5	聖僧榻 高 1.25 廣 4.1 長 4.8	道師榻 高 1.22 廣 4.1 長 4.58	-	-	-	短疊/貫箐	-

단위: 척, ○:기사 유, -:기사 무, △:추정

둘째, 正倉院文書에 보이는 興福寺와 法華寺의 고좌를 검토하여 고좌에 사용된 옻과 금의 양을 밝히고, 제작기법을 추정하였다. 특히 光明皇后의 추선을 위하여 제작된 法華寺의 고좌는 부속물을 土漆과 黑漆을 여러 번 거듭하여 마감하였고, 금도금으로 장식한 장석과 못을 사용하여 검은색과 노란색의 대비가 매우 강한 장식적 효과를 의도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正倉院文書의 石山院 기록을 통하여 고좌 제작에는 최소한 54명 이상의 공인이 6개월여에 걸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교미술에서는 금당의 불상과 그 부속물이 주목을 받기 쉽지만, 불법승으로 구성되는 사찰 내에서 법과 승을 아우르는 강당의 중요성은 금당에 못지않다. 그 강당의 가장 중요한 장엄구가 고좌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고좌의 위상은 불상의 대좌만큼이나 중요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본 사찰의 資財帳과 正倉院文書를 중심으로 고좌를 검토하고, 중국의 사례는 다루지 않았다. 중국 감숙성의 돈

황 막고굴에는 중국 고좌의 형태를 보완할 수 있는 회화자료가 다수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추기: 본 논문은 필자가 2015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한 [황룡사 강당 및 강당 동서편 건물 남문 복원심화연구] 성과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집필한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寧樂遺文』
『平安遺文』
『大日本古文書』
『東大寺獻物帳』
望月信亨編,『望月佛教大辭典』, 京都: 世界聖典刊行協會
奈良六大寺大觀刊行委員會,『奈良六大寺大觀』, 岩波書店
法隆寺昭和資財帳編纂所,『法隆寺史料集成』, ワコー美術出版
大安寺史編集委員會,『大安寺史・史料』, 大安寺

2. 논문

堀越光信,「『多度神宮寺伽藍緣起幷資財帳』考-その成立をめぐる諸問題」, 佛教藝術學會,『佛教藝術』241, 1998, pp.100-118.

近藤有宜,「法隆寺東院の救世觀音像安置について」, 日本歷史學會,『日本歷史』653, 2000, pp.1-17.

東野治之,「橘夫人廚子と橘三千代の淨土信仰」, 東京國立博物館,『Museum』565, 2000, pp.71-79.

山下有美,「石山寺造營機構の性格と展開」, 正倉院事務所,『正倉院文書研究』16, 2019, pp.1-43.
三宮千佳,「法華寺の西花苑、西院について-阿弥陀淨土院の造營をめぐって」, 早稻田大學美術史學會,『美術史研究』42, 2004, pp.45-66.
西宮秀紀,「多度神宮寺伽藍緣起幷資財帳の伝來と寫本研究覺書」, 專修大學人文科學研究所,『專修大學人文科學研究所月報』287, 2017, pp.1-25.
石上英一,「法隆寺伽藍緣起幷流記資財帳諸寫本の伝來」, 東京大學史料編纂所,『東京大學史料編纂所報』10, 1976, pp1-20.
小西一正,「古代の資財帳とその監査 : 監査思考からのアプローチ」, 日本監査研究學會,『現代監査』23, 2013, pp.96-103.
松田和晃,「安祥寺資財帳について」, 日本歷史學會,『日本歷史』449, 1985, pp.20-31.
_____,「興福寺の資財帳について」, 三田史學會,『史學』56-4, 1987, pp.457-498.
_____,「大安寺資財帳の成立に關する一考察」, 慶応義塾大學法學研究會,『法學研究』64-1, 1991, pp.191-212.
水野柳太郎,「大安寺伽藍緣起幷流記資財帳について」, 南都佛教研究會,『南都佛教』3, 1957, pp.45-56.
市川理恵,「造石山寺所關係文書からみた安都雄足の官司運營」, 東京大學史料編纂所,『東京大學史料編纂所研究紀要』24, 2014, pp.1-13.
奥村茂輝,「法華寺の成立過程」, 南都佛教研究會,『南都佛教』96, 2011, pp.88-123.
原浩 史.「廣隆寺講堂阿弥陀如來坐像の願意と造立年代-願主「永原御息所」と「亭子女御」・緖継女王との關係から-」,『古代寺院の芸術世界』, 東京: 竹林舍, 2019, pp.494-523.
中野 聰,「法華寺阿弥陀淨土院とその本尊について」, 龍谷史學會,『龍谷史壇』130, 2010, pp. 38-76.
中川由莉,「天平十九年伽藍緣起幷流記資財帳と寺院政策」, 南都佛教研究會,『南都佛教』97, 2012, pp.17-37.
川尻秋生,「資財帳と交替公文-廣隆寺帳を中心として」, 日本歷史學會,『日本歷史』503, 1990, pp.21-38.

3. 단행본

岡崎讓治監修,『仏具大事典』, 東京: 鎌倉新書, 1982.
岡藤良敬,『日本古代造營史料の復原研究』,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85.
大橋一章・片岡直樹編,『法隆寺-美術史研究のあゆみ-』, 東京: 里文出版, 2019.

福山敏男,『日本建築史の研究』, 京都: 綜芸社, 1980.
三宮千佳,『法華寺阿弥陀浄土院と平等院鳳凰堂』, 東京: 勉誠出版, 2014.
水野柳太郎,『日本古代の寺院と史料』, 東京: 吉川弘文館, 1993.
松田和晃,『索引對照古代資財帳集成—奈良期』, 東京: すずさわ書店, 2001.
林 南壽,『廣隆寺史の研究』,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03.
中野 聰,『奈良時代の阿弥陀如來像と淨土信仰』, 東京: 勉誠出版, 2013.
川尻秋生,『日本古代の格と資財帳』, 東京: 吉川弘文館, 2003.

(투고일: 2021. 1. 27 심사완료일: 2021. 2. 28 게재확정일: 2021. 3. 19)

임남수
소 속: 영남대학교 회화과
주 소: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전자우편: yuart@ynu.ac.kr

[Abstract]

Koza(高座) in Ancient Japan

Lim, Nam-su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documents on Koza(高座) in ancient Japan, considered its composition and scale, and materials related to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rough the examination of Assets-documents(資財帳), Koza in ancient Japan is a sitting tool for monks, consisted of the floor(階), a front desk(前机), a canopy(天蓋) and its pillars (支柱), and a large floor (大床).

Second, we examined the Koza of Kofukuji Temple(興福寺) and Hokkeji Temple(法華寺), which can be seen in the Shosoin- documents(正倉院文書), clarified the amount of lacquer and gold used in the Koza, and confirmed the decoration technique of the Koza. I

Third, through the records of Ishiyama Temple(石山院), it was confirmed that at least 54 workers were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Koza for 6 months.

In Buddhist art, the Buddhist statue of Kondo(金堂) and its accessories are attracting attention. But. I think Koza is as important as the pedestal of the Buddha statue.

Key words : Koza, Assets-documents, Horyuji, Daianji, Todaiji, Koryuji, Tadojinguji, Kofukuji, Hokkeji, Ishiyamain, Shosoin-documents